

EXHIBI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29 JULY-2 OCTOBER, 2022

제 19 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류성실
불타는 사랑의 노래

2022.7.29
- 10.2

SUNGSIL RYU

THE 19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THE BURNING LOVE SONG

ATELIER
HERMÈS

CREATE

2000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으로 시작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어느덧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류성실 작가는 역대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 작가로 짧은 작가 경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캐릭터를 앞세워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실 자본주의 사회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미술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류성실 작가는 작년 3월 수상 이후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도 재단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하여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던 장-미셸 알베롤라 (Jean-Michel Alberola) 작가님과 석판화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시에 개인전을 위한 신작 준비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류성실 작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이번 수상 및 전시를 계기로 작가로서 한 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미술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심사위원직을 흔쾌히 맡아 주신 김윤경 전 아틀리에 에르메스 큐레이터님, 양혜규 작가님, 유진상 계원조형대학교 교수님, 주세페 페노네 (Giuseppe Penone) 작가님, 장-미셸 알베롤라 작가님, 에르메스 재단의 파스칼 뮌사르 (Pascale Mussard) 이사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술상의 위상을 고려해 좋은 작가들을 추천해주신 김성원 리움 부관장님, 맹지영 독립 큐레이터(현 페이스 갤러리 디렉터)님, 박가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님,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님, 조주현 전 일민미술관 학예실장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승헌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

Hermès Korea is delighted to announce the 19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Sungsil Ryu is the youngest recipient of the art award since its inception in 2000. Highly regarded is her work that satirizes the capitalist society by creating one-person media contents with her unique persona, which has garnered great attention from the art circle as well as general public.

In spite of the pandemic, after receiving the award in March 2021, Ryu travelled to Paris upon the foundation's invitation and produced lithographs with Jean-Michel Alberola, one of the juries for the 19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Of course, she has been mostly concentrated on producing new works for the upcoming solo exhibition. I'd like to express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Sungsil Ryu once again, and wish that this award and the exhibition will help her grow further as an artist.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jury members: Yunkyong Kim, former curator of Atelier Hermès; Haegue Yang, artist; Jinsang Yoo, art critic and professor of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Giuseppe Penone, artist; and Jean-Michel Alberola, who continued to give genuine advice to Sungsil Ryu during her visit to Paris; and Pascale Mussard, Vice Presid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y thanks also go to those who have recommended great artists for the award: Sung Won Kim, Deputy Director of the Leeum Museum of Art; Jee Young Maeng, independent curator (currently Pace Gallery Director); Gahee Park, curator of the Seoul Museum of Art; Myung-ji Bae, cura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nd Juhyun Cho, former Chief Curator of the Ilmin Museum of Art.

Han Sung Hun
Managing Director, Hermès Korea

불타는 사랑의 노래 : 물질에 대한 순도 높은 열정에 대하여 안소연

안소연은 2019년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했다. 과도하게 미백화장을 한 욕망과 혐오 사이의 이미지를 작가 스스로 연기한 BJ 체리 장 캐릭터의 경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의 실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약하며 현실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의 음모론과 종말론을 내세워 천국시민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이 인물은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정보로 넘쳐나는 1인 미디어의 생태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교환경제의 요지경을 드러낸다. 역시 작가 본인이 분장한 국적불명의 외국인 나타사의 경우는 여행사업에 동원된 고용인이면서도 촌노들을 이국여행에 대한 환상과 일탈로 유도하여 돈벌이에 몰두하는 현지 가이드 캐릭터를 구현한 것이다.

류성실의 작품세계는 압축 경제성장 이후 한국 사회에 자리잡은 특유의 중부근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강요된 단 하나의 통치 권력인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예리하게 직시한다. 다만 그는 양극화나 빈부 격차와 같은 파생적 결과를 성찰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그 자신을 포함해 오늘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돈에 대한 원초적이고 강렬한 개인들의 욕망을 추적한다.¹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끌어 가는 캐릭터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체리 장의 ‘대왕 오피’나 나타사의 ‘사장님’으로 간주되며 후반에 머물던 이대왕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시킨다. 기회주의적인 자본가이자 문어발식 경영인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그는 과거 대왕트래블 사업을 통해 효도관광을 속물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타락시키면서까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여행업 대신, 동시대의 수많은 죽음에서 착안한 장례사업, 그 중에서도 생애주기가 짧은 극강의 화천율을 보장하는 애견장초화사를 벌인다.

기성의 장례식과 화장장의 절차를 차용한 전시 공간에서 관객은 어느 애견의 죽음과 애도의 예식에 동참하게 된다. 약 15분간 압축적으로 거행되는 일련의 화장 절차를 통해 죽을 마저도 철저하게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이대왕의 사업수완을 목도한다. ‘봉사’와 ‘최고급’ ‘기도’ 따위의 마케팅 컨셉을 업계 선배인 체리 장에게 한수 가르침 받아 실천하면서 돈보다 예술을 지향한다며 직접 작곡한 노래 ‘진짜배기 사랑’을 불러 견주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그 와중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직종을 바꾼 나타사는 죽은 강아지에 빙의한다는 사기성 짙은 필살기를 가진 인물로 재등장한다. 그는 죽음의 예식 앞에서 심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주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지출을 늘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물들 사이의 위계는 지위나 나이, 성별에 의해 구분되기 보다는 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신박한 창의성에 의해 결정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애견 화장장은 애도의 장소지만, 사업확장을 노리는 이대왕 자신의 홍보의 장이기도 하다. 화장 순서를 알리는 전광판마저도 놓치지 않고 지역 광고 방송처럼 본인의 인터뷰 영상을 송출하는가 하면, 회사 사옥에

THE BURNING LOVE SONG: ON PUREST PASSION FOR MATERIALS SOYEON AHN

안소연은 2019년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했다. 과도하게 미백화장을 한 욕망과 혐오 사이의 이미지를 작가 스스로 연기한 BJ 체리 장 캐릭터의 경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의 실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약하며 현실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의 음모론과 종말론을 내세워 천국시민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이 인물은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정보로 넘쳐나는 1인 미디어의 생태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교환경제의 요지경을 드러낸다. 역시 작가 본인이 분장한 국적불명의 외국인 나타사의 경우는 여행사업에 동원된 고용인이면서도 촌노들을 이국여행에 대한 환상과 일탈로 유도하여 돈벌이에 몰두하는 현지 가이드 캐릭터를 구현한 것이다.

Within few years of her career, Sungsil Ryu quickly emerged as a prominent artist with her captivating work that engages with Korea’s one-person media trend where she creates satirical narratives and bold characters. She so won the 19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becoming the youngest recipient of the award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0. BJ Cherry Jang is one of the characters the artist herself performs on real media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AfreecaTV, thus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reality. Wearing heavy white makeup, Cherry Jang is a play between desire and disgust, who on her channel has broadcasted unfounded conspiracy theories and eschatological theories (such as that North Korea has fired nuclear missiles toward South Korea), encouraging the viewers to purchase the citizenship of heaven. Through this character, Ryu brings to light the ecosystem of one-person media overflowing with fake news as well as the raree show of the exchange economy involved in it. Natasha is another character performed by Ryu. A foreigner character of unknown nationality, Natasha is portrayed as a tour guide who earns money by inducing Korean old bumpkins on overseas trip to a world of fantasy and aberration.

Ryu sharply addresses the peculiar nouveau riche sensibility that has taken hold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compresse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neoliberal market economy that has been imposed upon us like a ruling power. Instead of reflectively criticizing the derivative resul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or polarization of wealth, the artist traces the intense, primal human desire for money, from which she herself cannot be freed.¹

In her solo exhibition titled *The Burning Love Song*, the protagonist is *Dae Wang Lee* (Mr. Big King), a male character who was referred to as Cherry Jang’s “Big King oppa” and Natasha’s “boss” in Ryu’s previous works. The exhibition is thus expected to finally reveal an organic relationship among the characters. Dae Wang Lee is an opportunist capitalist who is unafraid to expand his business through reckless diversification, and previously he appeared as the owner of *Big King Travel* who maximizes profit by degrading Korea’s so-called filial piety tourism to a vulgar, perverted one. Now he is back as the owner of a dog funeral service company, while the travel industry is in crisis due to the COVID pandemic. It is from the wave of deaths that he got the new business idea, and because dogs have a shorter life cycle than humans, a dog funeral service would guarantee a high turnover ratio.

Comprised of formal funeral and creation proce-

눈이는 창업주의 흉상처럼 그 또한 화장장 벽면을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에서 봤을 법한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활용한다. 다만 화장암 부조가 아닌 번들거리는 시트지가 이를 대신할 뿐이다.

집짓 엄숙한 소각로의 반대편엔 총천연색의 조악한 이미지들로 그의 영웅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대왕의 사업적 성과와 청사진을 빼곡하게 그려 넣은 벽화는 그간 비디오파 해온 길고 긴 이야기 서술의 역할을 단 하나의 평면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과잉을 이루는데 이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광고판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거기에는 돈에 집착하는 장사꾼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은 그의 또다른 욕망도 투영된다. 앞서 한가하게 노래하는 자아에 이어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대왕의 모습은 사이버 종교지도자 슈프림 마스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술을 자신의 취약점을 가리는데 활용하면서 시시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현실 사회에서 목격했을 법한 속물적인 인간상의 의기양양함은 종종 예기치 않는 균열에 직면하기도 한다. 가끔 어디선가 터지는 녹취록의 존재가 그것인데, 이미지 정글의 한 부분에 노출된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이대왕이란 사업가가 현재 당국의 수배를 받는 경제사범이며 실은 경제에 관한 철학도 지식도 미천한 인간이란 사실이 폭로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타격이 그의 물질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신사업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있을까? 화장터 한 구석에서 서그럭거리며 회전하는 플라스틱 화환은 마치 오물을 닦아내는 세차장의 슬처럼 자본가의 부도덕함과 비천함을 깨끗이 닦아낼 것이다.

안소연은 2019년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했다. 과도하게 미백화장을 한 욕망과 혐오 사이의 이미지를 작가 스스로 연기한 BJ 체리 장 캐릭터의 경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의 실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약하며 현실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의 음모론과 종말론을 내세워 천국시민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이 인물은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정보로 넘쳐나는 1인 미디어의 생태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교환경제의 요지경을 드러낸다. 역시 작가 본인이 분장한 국적불명의 외국인 나타사의 경우는 여행사업에 동원된 고용인이면서도 촌노들을 이국여행에 대한 환상과 일탈로 유도하여 돈벌이에 몰두하는 현지 가이드 캐릭터를 구현한 것이다.

류성실의 작품세계는 압축 경제성장 이후 한국 사회에 자리잡은 특유의 중부근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강요된 단 하나의 통치 권력인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예리하게 직시한다. 다만 그는 양극화나 빈부 격차와 같은 파생적 결과를 성찰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그 자신을 포함해 오늘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돈에 대한 원초적이고 강렬한 개인들의 욕망을 추적한다.¹

1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가 2021년에 세계 17개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에 유일하게 한국인들만이 ‘물질적 풍요’를 1위로 선택했다. 조사 결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38%), 다음으로 ‘직업’(25%), ‘물질적 풍요’(19%), ‘친구/이웃’(18%) 순이었으며 17개국 중에서 14개 나라 국민이 ‘가족’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복수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만 답하고 답변을 끝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한국이었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20382.html

dures, the exhibition takes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y of mourning the death of a dog. Through the series of procedures condensed to 15 minutes, the audience is to witness the entrepreneurial prowess of the mammonist who uses even deaths as a business item. Having learned from Cherry Jang such marketing concepts as “service,” “the finest,” and “praying for what you desire,” Dae Wang Lee claims that he aims for art rather than money, and sings “True Love”, a song he says he wrote himself, which is a performance aimed at moving the hearts of the mourners who lost their beloved pet. Meanwhile, Natasha too appears, this time as an “animal communicator,” a trickster who professes to be possessed by the spirit of the dead dog. Natasha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he emotionally vulnerable mourners to a defenseless state, so that they can spend more money. The entire process suggests that the hierarchy of people within a capitalist society is determined by how pure their passion for money is and how innovative their creativity is, rather than by their social status, age, or gender.

The crematorium for dogs is more than a site of mourning; it’s a site for Dae Wang Lee’s self-promotion. He uses every corner of the space to create his image as something of a hero. The electronic signboard, originally deserved for informing the order of the procedures, broadcasts his interview video instead. The walls are decorated with his portrait images, imitating the way busts of conglomerate founders are installed in the company buildings, or like the statues of national heroes in national war museums or independence memorials. However, Dae Wang Lee’s portraits are flat wall sheets, not granite relief sculptures.

To the other side of the solemn brazier, his heroic narrative unfolds in earnest with full-color images. The mural depicting his business blueprints and achievements unpacks onto the two-dimensional plane the long epic story that was previously told in Ryu’s video works. Such an excess of visual information is a language of billboard advertising, which has to deliver maximum information under a given condition. The mural’s overflowing data contains Dae Wang Lee’s desire to launder his philistine image. The images of him painting an idyllic picture and singing peacefully, recalls how the pseudo-spiritual leader Supreme Master Ching Hai used art to mask her weaknesses, thus reducing art to a trivial and clichéd tool.

A snob’s triumphant air, as we are familiar with in reality, is vulnerable and is often confronted by unexpected challenges. In the exhibition, there are transcripts that pop up here and there, to which the visitors can access via a QR code, to find out that Dae Wang Lee is actually an economic criminal wanted by the police and an ignorant man who has no knowledge or philosophy about economics. Nevertheless, can a blow of such magnitude thwart his burning love for materials and his passion for his new business? Like the automatic brushes of a car wash that wipe away dirt, the giant plastic wreath clumsily rotating in a corner of the crematorium will also wipe away the capitalist’s immorality and lowliness.



류성실과의 대화

안소연 불타는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은 언뜻 대중문화의 클리셰로 전시의 실체를 모호하게 가리고 오도하려는 장치 같아 보이는데요, 전시의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이 전시공간과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감정상태나 야망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정확히 함축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 제목의 중의적인 활용과 함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류성실 가만히 앉아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는 일은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특히 남의 집 불구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관조하고, 파국적 로맨스를 결는질하고, TV 속 어린 연예인들의 열정을 소비하며 그들이 더 열심히 타오르길 응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유행하는 ‘불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불구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불타는 것들이 언젠가는 재가 될 운명임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어쨌든 타오르는 불 근처에는 다양한 욕망을 지닌 구경꾼이 몰려들게 마련이지만, 사실 무엇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들 구경꾼을 향해 입맛을 다시는 또다른 구경꾼들의 모습입니다. 타오르는 불과, 불을 향한 욕망과, 그들의 쓸모를 찾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는 또 다른 욕망을 상상하며 ‘불타는 사랑의 노래’를 떠올려보았습니다.

안 전시장은 ‘불타는’ 화장터를 재현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장소에서의 경험은 그동안 주력해 왔던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의 작품 감상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경험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화장터를 구상한 계기와 이번 전시 공간의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류 1. 우리는 한국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석유를 대체하는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 것인지, 원래 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은 정말 뽕감처럼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태워지고 있고, 누가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가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다짐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장터라는 소재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2. 저에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전시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사실 명예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원가 좀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각가나 화가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처럼 가성비나 추구하는 작가에게는 (공간을 임시로 점유하는) 전시 형식이 왠지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의 치적을 뽐내고 과시하기에 더없이 효과적이인 형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를 기능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인물을 상상하며 전시 공간 속 화장장을 기념비적 구조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안 전작들에서는 체리장이나 나타사처럼 작가 본인이 수행하던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었다면 불타는 사랑의 노래에서는 체리장의 ‘대왕

SUNGSIL RYU IN CONVERSATION WITH SOYEON AHN



AHN SOYEON The title The Burning Love Song at first sounds as if it’s borrowing a popular culture cliché, seeking to obscure and mislead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 But once you understand what the exhibition is about, you know it’s an expression that accurately connotes some facts about the exhibition; the title delivers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space, the characters and their ambitions and emotional states. Can you please explain about the title, its ambiguities and implications?

SUNGSIL RYU It’s peaceful and pleasant to be sitting still watching a burning fire. It is especially so if it’s someone else’s house. It’s so much fun contemplating someone’s downfall, glancing at catastrophic romances, consuming the passion of young entertainers on TV and wishing them to burn harder. Perhaps this also can be called a “bulmeong”(spacing out while staring at the fire), which is in vogue these days.

I guess the reason why people enjoy watching fire burns is because they know that burning things are destined to become ashes someday. Around blazing fire, bystanders flock with various desires. But what I find more interesting is, there are always people who flock to watch those bystanders. I came up with the title The Burning Love Song while imagining a burning fire, a desire for fire, and another kind of desire which calculates to make use of them.

AHN The exhibition actually stages a “burning” crematorium, presenting the viewers with a new dimension of spatial experience that is unseen in your previous works mostly produced for online or mobile media.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crematorium idea an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exhibition?

RYU 1. We all know very well, as we learn at schools,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produce a single drop of oil. I’m not sure if it’s because humans need to substitute for oil in this country, or if it’s all like that elsewhere, but sometimes I feel as if I’m burning like firewood. Where am I, what am I burning for, and who benefits from this... Thinking about these things lead me to question what am I doing here.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se thoughts into resolutions, the idea of cremation emerged in my mind.

2. For me, having an exhibition in an offline space is an honor. It’s a bit awkward not to think about honor. Sculptors or painters whose works require physical

오빠’나 나타사의 ‘사장님’으로 간주되던 이대왕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류성실씨의 구조화된 서사의 전개에서 이 중년남성의 부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투영되지 않은 남성 캐릭터의 구성 과정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류 이대왕은 대왕트레블의 대표입니다. 사실 이대왕은 이미 본인이 보컬로 참여한 싱글을 2개나 발매한 전적(대왕트레블 로고송)이 있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는 사장이라는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엉덩이춤을 추던 적극적인 엔터테이너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간은 후위에서 마스크로써 활동하며 안전하게 살아왔지만, 코로나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세대/계층/성별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인 이대왕 캐릭터를 구상할 때 전형적인 중년의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기보단, 오히려 일정 부분 제 스스로가 가질 법한 세속적/보편적 욕망을 인물에 투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체리장/나타사와도 거의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의 맥락 없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동종 업종을 대를 이어 지속한다는 외국 사례와는 달리 그룹이나 재벌에서부터 폭력조직, 동네의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고 보는 한국식 경제 생태계를 패러디합니다. 체리장이 소위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의 신종 돈벌이를 제시했다면 이대왕을 통해 작가는 우리 사회의 기성 경제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것 같습니다.

류 봉사와는 담 쌓고 살아온 지인이 어느 날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겼다며 저에게 요양원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로부터 상당한 국가보조금을 받아 행거며 영입할 수 있다는 사업적 이점 때문이었는데, 이후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이 생각보다 골치 아픈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인이 (본인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깃집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가, 고깃집 단가가 맞지 않아서 키즈 카페를 구상했다가,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사후처리가 까다로워진다기에 마지막엔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바꾸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즘 그의 카페가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니 과정이 어찌됐든 잘 된 셈입니다.

안 여행 사업이었던 그가 뜬금없이 애견 장례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 요즘 여행산업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가망이 없는 국제적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그가 일본 후퇴 이보 전진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 빼고는 되는 장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가 아마 거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장례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 애견 장례인 이유는 아무래도 개가 인간에 비해 작고 생애주기도 짧으니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좋고 투자비용이 적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올해 이 사업으로 한 밀천 잡고 나면 내년엔 그만 두고 다시 여행사업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숙원사업은 어찌됐든 여행사를 키워서, 그 자본으로 항공사를 차리는 일이나까요.

안 체리장이 정보 유통에서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면, 이대왕의 장례사업은 관혼상제의 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spaces are in a different position from me. But for an artist like me who pursues cost-effectiveness, the exhibition format (which occupies a space temporarily) feels somewhat inefficient. But for that same reason, I thought that this could be a more effective form to show off and display someone’s achievement. So, by imagining a fictional character who wants to practically consume an exhibition, I have extended the cremation idea into a monumental structure.

AHN In your previous works, the protagonists were female, such as Cherry Jang and Natasha, the characters performed by you. Dae Wang Lee (Mr. Big King) is a male character who was previously referred to as Cherry Jang’s “Big King oppa” or Natasha’s “boss”, and now he comes to the fore in The Burning Love Song. Does this rise of a middle-aged man have any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your structured narrative? I’m also curious to hear what it was like for you to create a male character. Did the process provide you with any new experiences?

RYU Dae Wang Lee is the president of the Big King Travel. But he is also an active entertainer, who has released two singles (Big King Travel logo song) that he sang, and danced his booty off in the music video. My guess is that he used to stay in the rearguard playing a mascot of his company, but due to some inevitable situations such as the COVID pandemic, he has had to put himself out to the public eye.

I think that individual desires in the capitalist system have a universal direction that penetrates the divisions of generation/class/gender. So, when I was conceiving of the middle-aged male character, I projected onto it some of the worldly/universal desires that I might have on my own, rather than drawing on stereotypical images of middle-aged men. I think Cherry Jang and Natasha share similar desires in a way.

AHN His reckless business expansion through random diversification can be seen to be a parody of the Korean-style economic ecosystem where the participants—from corporations and chaebols to gangsters and small business owners—seem unafraid to go for anything to make money. It’s very different from foreign cases where a business is carried on through generations within a family. With the Cherry Jang character, you’ve shown how the so-called “social media content creators” demonstrate a new type of money-making these days. Now, with the Dae Wang Lee character, your critique seems to be directed towards the established economic system of Korea.

RYU One day, an acquaintance who had no interest in voluntary service, suggested to me that we together start a nursing home business, saying he was now interested in welfare for the elderly. It turned out that he was actually thinking of his own gain from operating a nursing home because it can receive substantial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However, after he learned a nursing home can be a more troublesome business than expected due to COVID, he changed his plan to starting a meat restau-

없는 상주의 감정적 취약성과 불안을 공략합니다.

류 흔히 클라이언트가 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사실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이나 성별, 자본, 직위 같은 물리적 가치에 더해 ‘기세’가 한 몫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장례식의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한데요, 상호 직원들의 예를 갖춘 절차에서부터 견주의 애틋한 이별의 감정과 이에 부응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죽은 강아지 빙의, 실감나게 불타오르는 화로, 연통, 불기둥 등이 장소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마침내 로켓처럼 창공을 날아오른 주인공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천국에 도달하는데요, 사후 세계의 약속은 류성실씨의 작업에서 매우 익숙한 세계관입니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승과 저승의 문턱이 비교적 낮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류 ‘영원함’은 낭만적인 동시에 공포스럽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타임라인을 상상하며 이승과 저승을 무한하게 연결짓고 싶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살아 숨쉬는 현재가 영원하게 느껴져서 고통스럽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겠지?’ 싶어 안도하다가도, ‘혹시라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노예처럼 일만 하게 되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숨이 막혀서 현생을 어떻게든 고집스럽게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 전작 대왕트래블에서 중요 인물이었던 국적 불명의 나타사가 변경된 업종의 종사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피고용인 혹은 부역자의 신분에 머물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주체적인 인물로도 보입니다.

류 모두가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될 순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 한 몫 챙기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타사는 시스템에 부역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처한 상황을 활용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끔은 의도치 않게 정의의 지름길을 만들어 공공선에 일조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이번 애견 화장터는 이대왕의 신규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실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원대한 자기홍보의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류 이대왕은 관객을 그의 잠재적 고객으로 초대하지만, 사실은 이대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서 그저 광대처럼 장사하는 시늉 정도나 할 수 있다는 사실요. 표면적으로 애견 화장장의 모습을 갖춘 공간은 사실 이대왕의 치적을 과시하고 뽐내는 ‘전시’의 형태로 확장됩니다.

안 그는 사업을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궁극적으로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물질주의자인 이 같은 유형의 인물이 예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참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 이대왕은 자칭 번듯한 자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과거처럼 본인의 욕망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에게 욕망을 포장할 무언가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술이 쓸모없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기능을 지닌 상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rant (because he likes meat); but after calculating its unit costing, he changed his mind once again to start a kids café. But then, he learned that running a kids café can be very tricky if accidents occur and children get hurt, so in the end, he decided to open a bakery café. I hear that the bakery café is making good money these days, so whatever the process, the result has been good.

AHN Why did Dae Wang Lee, who was in the tourism business, suddenly start a dog funeral service company?

RYU It’s because the travel industry is flopping these days. I presume, in the face of the hopeless global economic downfall, he started the new business with the “one step backward, two steps forward” mindset. Until recently, there was a saying that funeral homes are the only business that’s doing well because of the pandemic. I guess he got an idea from there and started the funeral business. On why a funeral service for dogs in particular, I guess that’s because dogs are smaller and live shorter than humans, which means a relatively fast turnover rate and a low investment cost? I don’t know. But I guess if he makes a fortune with that business this year, he will quit it next year and then come back with the travel business. His dream is to grow his travel agency and with that capital start an airline company.

AHN Cherry Jang made money out of the information-vulnerable class of people, but Dae Wang Lee’s funeral business targets the emotional vulnerability and anxiety of mourners who have lost a loved one, who are absolutely the weakest in the ceremonial processions.

RYU People say that the client is the boss. But the position can change sometimes. In fact, I think power dynamics among people is determined by who’s got the nerves, in addition to physical factors such as age, gender, and social status.

AHN The process of the funeral ceremony is very dramatic. From the staff’s courteous services and the dog owner’s heartbreaking mourn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animal communicator possessed by the dead dog, and the brazier, flue, and pillars of fire flaming realistically – every feature is there to enhance the mood. The protagonist dog flies through the sky like a rocket, crosses the rainbow bridge, and finally arrives in heaven. The promise of afterlife is a familiar theme in your work. Can you please tell us why you tend to set a relatively low threshold between this life and the next?

RYU “Eternity” is both romantic and terrifying. I wanted to connect this life and the afterlife indefinitely, by imagining an endless timeline of life. It’s painful sometimes when the present I live in feels endless. ‘Death will bring an end to this all? But what if I go to hell and have to work like a slave forever?’ These thoughts are suffocating and then I think I will stubbornly enjoy the present life anyhow. Because no one knows what happens after death.

연젠가 예술의 쓸모를 생각하다가 유튜브로 복한의 성악가가 부른 평양 찬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도 가본 적 없는 평양이 그녀의 절절한 목소리와 장엄한 오케스트라 덕에 순간 위대한 평화의 도시처럼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한 이후로, 저는 예술의 위대한 쓸모에 대해 하찮게 평가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안 경제사범으로 수배 중이기도 한 이대왕은 한때 대왕그룹 총괄회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리장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라는 핀잔과 함께 최고급을 지향하라거나 봉사 컨셉을 내세울 것 등의 조언을 받습니다. 위계관계가 뒤바뀐 듯한 이 설정은 신규 세대의 주도권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류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왕이라는 인물을 평면적인 중년 끈대 캐릭터로 그리고 싶지 않았고, 반대로 체리장을 신세대를 상징하는 무엇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질 법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마구 섞어 놓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기득권이라든지 세대론에 대한 것은,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은 죽고, 젊은 사람은 늙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뻔하게도 죽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자본이 만들어내는 사람 간의 위계인 것 같아요. 이대왕이 나이 어린 체리장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체리장이 자본가 선배였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안 체리장 캐릭터는 2019년에 과로사한 설정이지만 향후 부활이 예견되는 카리스마 넘치는 오피니언 리더이고, 국적 불명의 나타사는 고용인 신분이지만 수완 좋은 마케터입니다. 님은 듯 다른 이 두 캐릭터는 평등세계에 존재하듯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그 둘의 연결 고리는 이대왕이 되죠. 이번 전시는 류성실의 작업세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욕망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라 할 수 있을까요?

류 사실 이번 전시는 상대적으로 캐릭터의 유기적 관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출하는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물의 관계가 비교적 분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간의 작업에 출연했던 인물들의 관계도를 느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전시의 주요 벽면은 앞 뒤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전시합니다. 조각가가 있는 전면부가 전쟁기념관 류의 장엄한 화강암 부조를 연상시키며 무채색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긴 서사를 하나의 평면에 종합한 후면부는 충천연색의 이미지 정글을 구현합니다. 작가에게 익숙한 시각 정보의 과잉노출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요?

류 제가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이미지들의 경우, 사실 개인적으로는 취향보다는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정신없는 간판이나 판촉물 디자인이 결국엔 디자이너의 취향이 반영된 이미지라기보단, 클라이언트의 상스러운 욕망을 반영하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요. 같은 맥락에서 저 역시 작업에서의 클라이언트를 관객으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선택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에게 주는 게 있어야 제가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안 조화 화환의 플라스틱 야자수 잎은 장례식장의 필수 소품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초기 작업에서부터 조각적 재료로 적극적으로 사용해 온 재료입니다. 작품 소개와 더불어 장례식장 용품이나 죽음의 의례에

AHN Natasha, a character of unknown nationality who was a major figure in the Big King Travel, reappears in the new work. She can be categorized as an employee or laborer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but she also appears to be independent enough to use tricks to secure her own profit.

RYU Not everyone can be a fighter fighting for justice in this world. That includes myself. The given situation is already too tight to take my own share. Natasha is a laborer in the system, but she also uses her own situation to find a new way out. That sometimes unintentionally makes shortcuts to justice, creating a situation that serves the common good.

AHN The crematorium for dogs is a new place of business established by Dae Wang Lee. But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s also a site of self-promotion of the man with great aspirations. Please explain how he makes use of that space.

RYU Dae Wang Lee invites the audience to be his potential customers. But he knows well that he can only pretend to do business like a clown here. It’s ostensibly a crematorium for dogs, but in fact, it has been expanded into a form of “exhibition” which exhibits and parades his achievement.

AHN He seeks to elevate his busness to the level of art, and he paints and sings, dreaming ultimately to become an artist. Why is such an extremely materialistic person interested in art? Also, I wonder if you have any references.

RYU Dae Wang Lee is a self-proclaimed wealthy capitalist. Such a person would have thought it’s too old-fashioned to display his desires straightforwardly. He needed something with which to wrap and decorate his desires. It’s often said that art is useless, but for some, it can be a product with excellent functions. One day, while thinking about art’s usefulness, on YouTube I came across a North Korean vocalist singing the anthem of Pyongyang. I’ve never been to Pyongyang, but thanks to her earnest voice and the magnificent orchestra sound, it came to me as a great city of peace and almost made me shed tears of emotion. After that, I decided not to underestimate the great use of art.

AHN It has been revealed that Dae Wang Lee is wanted by the police for violating economic laws and that as the chairman of the Big King Group he has received business consulting from Cherry Jang. The young woman would scold him and advise him to aim for the highest and to conceptualize volunteering activities, for example. Their relationship hints at a reversed hierarchy. Does this imply a generational change in the leadership?

RYU I didn’t want to portray Dae Wang Lee as a typical, condescending old man, and I didn’t want to Cherry Jang as someone who represents the new generation. Rather, I wanted to mix the stereotypical images that might be projected onto those characters. I don’t find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류 화환은 제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껌데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우면서 동시에 지저분하고 알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한 껌데기의 모습이랄까요?! 특히 무언가에 부여하는 사물인 주제에 뻔뻔하게 자기를 뽐내는 모습에 깜찍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던 시절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도열해있던 화환들이 기억납니다. 국회의원이나 기업 대표와 같은 유명인사의 이름이 적힌 화환 행렬이 어린 저에게 안겨준 뜨거운 감동(?)이 기억나요. 하지만 옆 빈소에 세워진 화환에 유명 배우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왠지 지는 기분이 들어 시무룩해졌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어 할아버지 앞으로 온 화환을 세 트럭에 나눠 실고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시골집까지 내려온 일, 그 많은 화환을 할아버지의 시골 집에 이르는 좁은 오르막길에 일렬로 세워두어 조문객을 맞은 일,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쳐 그 많은 화환이 도미노처럼 엎어지는 바람에 모든 가족들이 쪽우 속에 흥건해진 화환을 세우며 성질을 내던 모습, 화환에 적힌 이름이 비에 젖어 검은 국물처럼 흐르던 그 모든 에피소드가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둘러싸고 송고한 가족애와 세속적 욕망이 엉겨붙는 서사에 대해서 언젠가 꼭 하고싶은 작업이 있는데, 사실 아직은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로 느껴져서 지금은 계속 주변부에서 깔짝거리며 다른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작가는 본인이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상의 경험은 작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요?

류 종종 가족을 포함해 주변의 사업가들에게서 돈에 대한 열정을 보며 그 순수함과 특유의 과장한 창의성에 경도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창의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단, 어떤 간절함에 의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술가가 가장 창조적이라는 소리는 매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들의 창조성이 순수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곤 하니까 그게 좀 섬뜩합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가족을 변호하고 싶은 제 모습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족간의 갈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재미있기도, 오싹하기도 한 일상 속에서 제 나름의 답을 찾고 싶은 부분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meaning topics in the discourses on generations or the establishment. After all, old people die and young people grow old; so clearly, one day I will have to take a place left behind by the deceased. What interests me the most is the hierarchy of people created by capital. I conjecture the reason why Dae Wang Lee humbly accepted the much younger woman's advice was because Cherry Jang was a more experienced capitalist than he.

AHN Cherry Jang died from overwork in 2019, but it is expected that the charismatic opinion leader character will resurrect in the future. Natasha is a laborer of unknown nationality, but also a skillful marketer. These two characters, who share affinities, never come across each other as if they exist in two parallel worlds, but they are linked by Dae Wang Lee. Can we regard this exhibition an opportunity for you to expose the organic relationship among your characters that represent neoliberal desires?

RYU Actually, relatively speaking, I think this exhibition is not structured to actively stage the chemistry between the characters. I think the relationship of the characters is rather fragmented. But in the exhibition, you can loosely check the formation of the characters that have appeared in my work so far.

AHN In the exhibition space, the main walls display completely different images on the front and back sides. The front side, where the incinerator is installed, is achromatic and reminiscent of a war memorial's majestic granite relief sculptures; whereas the rear side, which is used to sum up the long narrative, is a full-color image jungle. What are the sources or inspirations of your use of visual information overflow?

RYU Speaking about the numerous images that I use in my work, I think they are selected more by necessity than by taste. It's like how the frenzied designs of street signboards and promotional posters end up reflecting the client's vulgar desire rather than the designer's taste. In the same vein, I think I have been selecting images while considering my audience in place of the client. It's because I believe I have to give something to the audience in order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AHN The plastic palm leaves in the artificial flower wreaths are decorative elements commonly found in funeral halls. But they also have often appeared in your work; you've employed them as sculptural materials since the beginning of your career. Can you tell us what has led you to take an interest in funeral supplies or rituals of death?

RYU I like standing wreaths because they are the best objects that I know can play the role of empty shells. Fancy and cumbersome, garish and superficial, and nevertheless perfectly calm and self-possessed?! They are just accessories, but shamelessly brag about themselves, and I think there's a cute side to that.

I remember the standing wreaths lined up at my grandfather's funeral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remember I was deeply moved(?) by the procession of wreaths with names of famous people such as politicians and corporate CEOs on them. However, I also remember that upon seeing the names of famous actors written on the wreaths standing at the mortuary next door, I felt I was losing and became sullen. Then, those wreaths sent to my grandfather were divided into three trucks, which carried them from Seoul's funeral home to his country house ; the numerous wreaths were erected in a row on the narrow uphill road leading to my grandfather's house; a rainstorm struck and the wreaths fell like dominoes, so the entire family, in a fury, had to set up the wreaths again in the heavy rain; the names on the wreaths got soaked in the rain and dropped like black broth. All these episodes remain impressive in my memory. There's a narrative I'd like to develop someday, about a family's lofty love and worldly desires expressed around a death. But it still feels like a difficult theme, so I guess now I'm working on other things, making lame attempts in the periphery.

AHN You have said that you are a member of a large family and are involved in your family-run business. How are those personal daily experiences of yours reflected in your work as an artist?

RYU Often I see the passion for money in the business people around me, including my family, and get impressed with their innocence and eccentric creativity. I think that creativity is not an innate ability, but a by-product produced by earnest desperation. (In that context, I think the saying that “an artist is the most creative”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 produced by the mass media.) But their creativity is sometimes expressed in the form of pure evil, which creeps me out a bit.

There's a part of me that wants to defend my family, but as an individual I can stand in the opposite position as well. It's an ordinary family conflict, in a way. Maybe my work is how I unravel the questions that arise in my daily life that is both interesting and creepy.

류성실 (b. 1993)	
학력	2018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졸업
개인전	2020 <u>대왕트래블2020</u> , 웹전시
2019	<u>대왕트래블칭첸투어</u> , 탈영역우정국, 서울
단체전	2021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	<u>황해출해</u> ,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u>나도 잘 지냅니다</u>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2020
2020	<u>이 공간, 그 장소</u> ,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	<u>개인들의 사회</u>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u>Follow, Flow, Feed</u> , 내가 사는 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	<u>아티스트로 살아가기</u> , 세화미술관, 서울
—	<u>뉴 템포_스크린타임</u> , 캔파운데이션, 서울
—	<u>나메 Name</u> , 뮤지엄헤드, 서울
2019	<u>싸이키델릭네이처</u> , 보안여관, 서울
—	<u>CHERRY-GO-ROUND</u> ,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류성실×업체eobchae)
2018	<u>뉴스</u> , 리플리에게, 북서울미술관, 서울 (류성실×업체eobchae)
—	<u>DATAPACK</u> , 일민미술관, 서울
—	<u>LAPSES</u> , 플랫폼 엘, 서울
—	<u>PACK2018</u> , 공간사일삼, 서울
—	<u>미러의미러의미러</u> , 합정지구(류성실×업체eobchae), 서울
퍼포먼스	
2019	<u>퍼폼 2019</u> , 일민미술관, 서울
—	<u>칭첸맛보기투어</u> , 오시선 x 지하극장, 서울
수상 및 레지던시	
2022	금천예술공장, 서울
2021	제19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에르메스 재단
—	아트 체인지 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청년예술단, 서울문화재단(다모객)
2018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SUNGSIL RYU (B.1993)	
Based in Seoul	
Education	2018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culpture), Seoul
Solo exhibitions	2020 <u>Big King Travel 2020</u>
2019	<u>BigKing Travel Ching-Chen Tour</u> ,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Group Exhibition	2021 21st Song Eun Art Award Exhibition, Song Eun, Seoul
—	<u>Sunset, Sunrise</u> ,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	<u>I'm Okay Too</u>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20	<u>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u> , Daelim Museum, Seoul
—	<u>The Society of Individuals</u> ,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	<u>Follow, Flow, Feed</u> , Arko Museum, Seoul
—	<u>Artist Survival</u> , Sewha Museum, Seoul
—	<u>New Tempo_Screentime</u> , CAN-foundation, Seoul
—	<u>나메 Name</u> , Museum Head, Seoul
2019	<u>Psychedelic Nature</u> , ART SPACE BOAN, Seoul
—	<u>CHERRY-GO-ROUND</u> ,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Sungsil Ryu x Eobchae)
2018	<u>NEWS, DEAR MR. RIPLEY</u> , Buk-Seoul Museum of Art (Sungsil Ryu x Eobchae), Seoul
—	<u>DATAPACK</u> , Ilmin Museum of Art, Seoul
—	<u>LAPSES</u> , Platform-L, Seoul
—	<u>PACK2018</u> , Space 413, Seoul
—	<u>Mirrors of Mirrors of Mirrors</u> , Hapjungjigu (Sungsil Ryu x Eobchae), Seoul
Performance	
2019	<u>PERFORM 2019</u> , Ilmin Museum of Art, Seoul
—	<u>Ching-Chen Matbogi Tour</u> , Osisun x Theatrebase, Seoul
Awards & Residencies	
2022	The Seoul Art Space Geumcheon (SASG)
2021	The 19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rt Change Up Grant, Arts Council Korea (ARKO)
—	Ar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SFAC)
2020	First Ar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SFAC)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쥬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Maxime Gasnier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Cho Soo M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B1F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수요일 및 추석연휴(9월 10일, 11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Ahn Soyeon
Graphic Designer: Shin Shin
Translator: Lee Soojin
Exhibition Photographer: Kim Sangtae
Songwriter: HWI
Vocal: Jae Hyun

ATELIER HERMÈS

Th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The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La Verrière) and Tokyo (Le Forum).

